

1920년대 민족운동의 총결산

광주학생운동

광주학생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되어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학생운동을 말한다. 흔히 일제강점기 3대 민족운동의 하나로 평가된다. 1929년 10월 말 나주역에서 일어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이 계기로 11월 초 광주지역 학생시위가 벌어졌고 나아가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었다. 11월 3일의 다소 우발적인 시위가 11월 12일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사범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가두투쟁으로 이어졌고 점차 인접 지역인 목포와 나주로 확산되어 12월에는 서울에서도 학생시위가 벌어지는 등 전국의 최소 250여 학교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나주역에서의 '충돌'이 대규모 학생운동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3.1운동의 경험이 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학생, 농민, 노동자는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민중세력은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 정책과 폭압 속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동맹휴학, 소작쟁의, 파업을 감행하면서 항일의식과 조직력을 키워나갔다. 이와 같은 민족운동 역량이 성숙해진 결과 학생독립운동이 촉발될 수 있었다.

1920년대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된 동맹휴학은 교육 여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원운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노예교육 철폐'와 같은 슬로건도 등장했으나 식민통치 전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은 1926년 6.10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거치며 독립운동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광주에서 벌어진 '충돌'과 대규모 검거, 이에 항거하는 시위 투쟁은 '식민지교육 철폐',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 당시 고조되었던 동맹휴학의 요구 사항과 맞물리면서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항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1930년대 학생운동이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는 전기가 되었다.

광주학생운동은 중국의 관내, 만주와 노령, 일본, 미주에서도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외를 통틀어 280여 학교가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운동의 규모 면에서 3.1운동 이후 가장 크게 확산된 대중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도층과 참여층이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여기에 일부 사회단체, 사상단체가 관여했다는 점이 3.1운동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1930년 1월에는 중국국민당 정부가 광주학생운동을 지지함으로써 현지 민족운동가들을 고무시켰고, 참여했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후 청년운동, 노농운동 등에 투신하며 민족운동을 계속했다. 이렇듯 광주학생운동은 1930년대 민족운동을 촉진하는 계기이자 인적 자원이 양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어난 민족운동 발전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 되었다.

이러한 광주학생운동의 현장 중 대표적인 사적지는 광주광역시의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학생운동시위지'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옛 나주역사 학생운동지'가 있다. 현장에는 각각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자리하여 그날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다.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전경



광주역 앞에 모인
학생 시위 참가자들
(『동아일보』, 1929년 11월 5일)



광주학생운동 관련 시위전단
(독립기념관 소장)

▶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학생운동시위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옛 광주고등보통학교 터
현 광주제일고등학교 전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사적지 상세보기](#)

▶ 옛 나주역사 학생운동지



옛 나주역사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사적지 상세보기](#)